

COAH:
The Center of Arts & Healing

예술치유센터

NDO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MYONGJI HOSPITAL

환자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 관동의대 명지병원 ‘예술치유센터’

색다르지만 쉬운 시도는 아니었다.
감성을 넘어 환자의 치유 단계까지...

환자들에게 예술적 감성을 통한 전인적 치
유를 제공하기 위해 출발한 관동의대 명지
병원의 ‘예술치유센터’를 소개한다.
〈권혜미 기자〉news@pharmstoday.com



이소영 교수



①



②



③

- ① 예술치료장면
- ② 소아병동 미술치유 프로그램
- ③ 만성신부전환자 국악치료

관동의대 명지병원에서는 타 병원에서는 들리지 않던 노래소리가 들린다. 암 환자는 물론 만성신부전, 소아질환 및 산부인과 등 대부분의 의학 분야에서 음악, 미술, 연극 등 다양한 예술활동을 질병치료에 본격적으로 접목하는 예술치유센터가 본격적으로 문을 열면서 활동을 시작한 것이다.

음악이나 미술, 연극 등의 예술 치료가 암세포를 직접 파괴하는 면역세포 NK cell(natural killer cell)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는 등 예술치유에 대한 효과가 입증되면서 음악을 치료에 접목시키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가 됐다.

이에 발맞춰 명지병원은 국내 최초로 종합 예술치유센터를 오픈했다.

그 동안 음악과 미술치료 등이 정신건강의 보조 치료나 입원 환자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일회

성 프로그램에 국한돼온 것과는 다르다.

명지병원 예술치유센터는 음악학박사인 이소영 교수와 1급 음악치료사 자격을 갖춘 전문 코디네이터가 상주하고 있다. 치유음악회를 전담하는 전문예술가 그룹과 음악, 미술, 동작, 문학, 연극 등 다양한 예술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예술치료사 그룹으로 구성된 예술치유단도 조직됐다. 이들은 환자 대상 치료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직원대상 심신 프로그램, 예술치유의 임상적 연구 등 포괄적인 활동을 펼친다.

문을 연 지 이제 한달. 예술치유센터는 차근차근 접근 중이다.

암, 혈액투석, 소아과 환자들에게 통증-불면-통찰-회복의 4단계 주제로 시와 음악, 동작을 활용한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. 또 수술 환자들에게는 마취 전부터 회복실까지 불안감 해소와 자연치유력을 높여주기 위한 맞춤형 음



악 프로그램을 제공한다.

소아병동 환아들이 매일 음악, 미술, 동작, 문학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접할 수 있는 ‘어린이 예술 교실’을 개설했으며, 병간호에 지친 부모들을 위한 ‘부모 예술교실’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.

예술치유는 명지병원이 추구하고 있는 IT융합 의학과 접목, PHR(Personal Health Record)을 활용한 스마트헬스케어 구현에서도 중요한 몫을 하게 될 전망이다.

명지병원 예술치유센터는 단순한 심리 치료를 넘어 환자들이 가장 편안한 환경에서 최상의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에 도전하고 있다.

암 환자의 NK cell을 증가시키는 ‘ONCO-Art’와 같은 신개념 예술치료를 시행하고 임상데이터 축적을 위해 임상 의료진과 협력 연구에도 나선다.

치료와 교육, 연구 등 그 어느 것도 놓치지 않

는 모든 것을 갖춘 예술치유센터로 성장하기 위한 노력이다.

음악치료에 대한 임상연구를 통해 그 결과를 연구 논문과 결합하면서 데이터를 모아 연구를 더욱 심화시킬 예정이다. 새로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확장된 치료를 하면서 연구에 반영한다는 것이다.

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에 맞는 민요나 장단 등 국악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의미있는 연구결과를 얻어낸다는 계획이다.

이소영 센터장은 “지금만 시작단계지만 오랜 시간 축적된 경험으로 음악치료를 이끌 수 있도록 하는게 목표”라고 말한다.

그는 “독자적인 예술치료 활동 개발과 의료행위가 결합되는 ‘예술과 의술(Arts&medicine)’의 만남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데 앞장서는 동시에 예술치유사들이 많은 경험을 쌓고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연구와 실험의 장으로 발전시키겠다”고 강조했다. _ MP저널